



타이슨 가이

우사인 볼트

아사파 파웰

절대 놓칠수 없는 명승부 보라

10대 관전 포인트

1 '광주의 딸' 김찬미 금겨냥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9일 오전 11시30분) 전남여고 출신 김찬미(19·기업은행)가 베이징 올림픽 첫 금메달이 걸려 있는 사격 여자 10m 공기 소총 경기에 나선다. 지난해 아시아선수권대회 준우승자인 김찬미는 지난 대회 우승자인 두리(중국), 4월 프레스빌림픽 우승자 카트리나 예몬스(체코), 결선 세계기록(505점) 보유자인 소나 파일쉬프터(독일) 등과 겨루게 된다. 베드민턴의 화순실업고등학교 출신 이용대(20·삼성전기)도 남자 복식과 혼합복식 2관왕에 도전장을 내민다.

2 수영 펠프스 8관왕 가능할까

수영 남자 개인혼영 400m 결승(10일 오전11시) 마이클 펠프스(미국)와 라슬로 체흐(헝가리)의 맞대결이 유력하다. 8관왕을 노리는 펠프스의 첫 금메달 여부가 결정되는 종목이다. 펠프스의 8관왕 등극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 체흐는 지난 해 유럽소프트스쿠션선수권대회 개인혼영 400m에서 최초로 4분 벽을 넘어섰다.

3 박태환 한국수영 금역사 쓰나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결승(10일 오전11시21분) '마린보이' 박태환(19·단국대)이 첫 메달에 도전하는 종목이다. 9일 예선에 이어 10일 메달을 가리는 결선에 나서는 박태환은 주종목 격인 400m에서 좋은 성적을 내 이후 열리는 200m나 1,500m까지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4 美농구 '드림팀' 자존심 되찾나

농구 남자 예선 미국-중국(10일 밤 11시15분)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지구촌 축제인 올림픽. 전 세계 스포츠 영웅들이 참가하는 올림픽에선 절대 놓칠 수 없는 명승부가 존재한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한국 스포츠 역사를 새롭게 작성할 박태환(수영)과 장미란(역도), 그리고 8관왕에 도전하는 펠프스, 육상 100m의 인간탄환 경쟁 등 볼거리가 무궁무진하다. 10대 관전 포인트를 시간대(한국시각)별로 짚어봤다.

아테네올림픽 동메달에 그친 수모를 이번엔 씻어내겠다는 미국 남자농구 대표팀이 '걸어다니는 만리장성' 야오밍이 이끄는 중국과 예선 첫 경기를 갖는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미국이 두 수 정도 앞서있지만, 개최국 중국과 첫 경기라 경기분위기는 결승 못지 않게 뜨거울 것으로 기대된다. 남자농구 결승은 24일 오후 3시30분에 펼쳐진다.

5 中-美 체조요정들의 맞대결

체조 여자 단체결승(13일 오전11시30분) 손 존슨과 아나스타샤 류킨을 앞세운 미국과 청페이가 간판으로 나서는 중국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지난 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부 금메달 6개 가운데 4개를 휩쓴 미국의 기세가 최근 두드러지지만 중국은 개최국의 이점을 안고 있다.

6 육상 100m '인간탄환' 누구

육상 남자 100m 결승(16일 밤 11시30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를 가리는 남자 100m 결승은 아사파 파웰, 우사인 볼트(이상 자메이카), 타이슨 가이(미국)의 3파전이 예상된다. 볼트가 갖고 있는 9초72 세계기록을 넘어서는 기록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파웰과 가이는 최근 여객과 허벅지 부상으로 고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볼트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많다.

7 테니스 페더러-나달 샷대결

테니스 남자단식 결승(17일 오후 5시) 세계 랭킹 1위와 2위를 달리는 로저 페더러(스위스), 라파엘 나달(스페인)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페더러는 올림픽이 끝나면 236주간 지켜온 세계 1위 자리를 나달에 내줘야 할 입장이라 이번 대회 금메달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각오다. 반면 올해 프랑스오픈과 윌블던을 휩쓴 나달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며 랭킹 1위 등극을 올림픽 금메달로 자축

할 태세다. 페더러는 2회전에서 이형택(32·삼성증권)과 만날 가능성이 높다.

8 '황색 탄환' 류시앙 2연패 도전

육상 남자 110m허들 결승(21일 밤 10시45분)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로 꼽을 만한 이벤트다. '황색 탄환' 류시앙(중국)이 올림픽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류시앙의 금메달이 유력해 보였던 이 종목에서는 6월 다이너 로블레스(쿠바)가 12초87로 류시앙보다 0.01초 빠른 기록을 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9 한국 야구 메달 색깔 뭘까

야구 결승(23일 오후 7시) 야구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에서 빠지기 때문에 마지막 금메달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도 일본에서 뛰는 이승엽(32·요미우리)까지 불려들어 2000년 시드니올림픽 동메달의 기쁨을 재현하겠다는 각오다. 전 통의 야구 강국인 미국, 일본, 쿠바 등이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가운데 한국도 그 틈새를 비집고 마지막 올림픽 무대를 장식하려고 하고 있다.

10 이봉주 골드 레이스 도전장

육상 남자 마라톤(24일 오전 8시30분) '봉달이' 이봉주(39)는 올림픽 마지막 도전에 나선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손기정,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황영조에 이어 이봉주가 세번째 월계관 주인공을 노린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 리스트인 이봉주의 나이는 39세로, 운동선수로는 환갑을 넘긴 나이이다. 경쟁자는 올 시즌 2시간 5분 15초를 기록한 마틴 랙(케냐)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국 금메달 목표(9종목 10개 이상)

(25개 종목 267명 출전)

| | | |
|--------|---------|---|
| 사격 | 0~1개 예상 | 9월 11시 30분 여 10m 공기소총 결승(김찬미, 김여울) 9월 16시 남 10m 공기권총 결승(진종인) 10월 13시 여 10m 공기권총 결승(이호림) 11월 16시 여 트랩 결승(이보나) |
| 유도 | 0~1개 예상 | 9월 19시 남 60kg급 결승(리운드(최민호)) 11월 19시 남 73kg급 결승(리운드(왕기춘)) 12월 19시 남 81kg급 결승(리운드(김재범)) 14월 19시 남 100kg급 결승(리운드(장성호)) |
| 수영(장영) | 1개 예상 | 10월 11시 21분 남 자유형 400m 결승(박태환) 12월 11시 13분 남 자유형 200m 결승(박태환) 12월 11시 45분 여 평형 100m 결승(정슬기) 15월 11시 09분 여 평형 200m 결승(정슬기) 17월 11시 05분 남 자유형 1500m 결승(박태환) |
| 역도 | 2~3개 예상 | 10월 18시 25분 여 단체전 결승(박성현, 윤옥희, 주현정) 11월 18시 25분 남 단체전 결승(박경모, 임동현, 이창환) 14월 18시 55분 여 개인전 결승 15월 18시 55분 남 개인전 결승 |
| 체조 | 1개 예상 | 12월 20시 남 69kg급 결승(이배영) 13월 20시 남 77kg급 결승(사재환) 16월 20시 여 75kg급 결승(장미란) |
| 태권도 | 0~1개 예상 | 12월 19시 15분 그레코로만 60kg급 결승(정지현) 14월 18시 20분 그레코로만 84kg급 결승(김정섭) |
| 탁구 | 0~1개 예상 | 14월 12시 남 개인종합(안태영) 19월 19시 남 평행복/철복 결승(안태영, 김대은) |
| 배드민턴 | 0~1개 예상 | 15월 19시 30분 여자복식 결승(이경원 - 이효정) 16월 21시 30분 남자복식 결승(정재성 - 이용대) 17월 20시 30분 혼합복식 결승(이용대 - 이효정) |
| 태권도 | 2개 예상 | 21월 21시 여 57kg급 결승(임수정) 21월 21시 15분 남 68kg급 결승(손태진) 22월 21시 여 67kg급 결승(황정선) 23월 21시 15분 남 80kg 이상급 결승(차동민) |



2008 베이징 올림픽 중국발 경기 일정

| 2008년 8월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
| 개회식 | | | | | | | | | | | | | | | | | | | | |
| 예선 | | | | | | | | | | | | | | | | | | | | |
| 준결 | | | | | | | | | | | | | | | | | | | | |
| 결승 | | | | | | | | | | | | | | | | | | | | |
| 폐회식 | | | | | | | | | | | | | | | | | | | | |

☆ 중 ☆ 누가 될까

수영-펠프스, 체조-청페이 다관왕 노려

올림픽을 보는 또 다른 재미는 별의 등극이다. 금메달을 목에 주렁주렁 걸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스타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선 누가 별종의 별인 다관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다관왕을 예약한 스타들을 살펴봤다. ▲8관왕 도전 마이클 펠프스=8관왕을 선언한 마이클 펠프스(23·미국)는 올림픽의 역사를 뒤집어주고 있다. 펠프스는 이번 대회에서 개인종목 5개와 계영 3개에 출전해 역대 올림픽 최다관왕인 8관왕에 도전한다. 종전 최다관왕 기록은 수영의 마크 스프츠(미국)가 1972년 뮌헨 올림픽에서 세운 7관왕이다.

펠프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배영 100·200m, 개인혼영 200·400m, 계영 800m, 혼계영 400m를 휩쓸며 6관왕에 올랐고, 2007년 멜버른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7관왕을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이 계영 예선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펠프스의 8관왕 꿈은 무산됐다. 펠프스 외에도 모두 46개의 금메달이 걸린 수영에서 다관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여자 펠프스'로 불리는 케이티 호프(19·미국)는 미국 대표 선발전에서 6개 종목의 출전권을 따냈다. '단거리 여제' 리비트리켓도 세계선수권대회 5관왕의 기록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역대 올림픽 최다관왕인 8관왕에 도전하는 수영 스타 마이클 펠프스.

▲체조 요정들의 다관왕 승부=여자체조는 단연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다. 중국의 청페이(20)와 미국의 손 존슨(16)이 양국을 대표하는 체조 요정들이다. 이들 중 누가 더 많은 금메달을 가져가느냐를 두고 양국의 자존심 경쟁도 치열하다. 존슨은 지난해 슈투트가르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고, 청페이는 2006년 아루

스 세계선수권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격돌하는 이들은 단체전과 개인종합을 비롯해 주종목인 마루운동과 도마에서 불꽃튀는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존슨은 셋발답게 힘이 넘치는 연기가 일품으로 마루에서 절대 강자로 꼽히고, 도마 1인자로 노련한 청페이는 기술적인 완성도가 세계 최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